

빛고을 곳곳 벽화로 만나는 BTS 제이홉



중국 팬들, 18일 생일 기념 청춘발산마을에
15m 대형벽화 'HOPE in LOVE...' SNS 인증샷, 광주 홍보 효과
평민마을에도 조성... 'K-POP 스타의 거리' 친필 사인, 가보고 싶은 장소 1위

광주 출신인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생일(2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팬들이 청춘발산마을에 벽화를 조성했다. <꽃보다 벽화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했고, 2021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르는 등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 엄청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룹 뒤에는 언제나 BTS를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

BTS가 세계적인 스타인 만큼 그들의 팬 클럽인 '아미(ARMY)' 역시 단순한 팬 클럽이 아니다. 특히 광주 출신인 BTS 제이홉(정호석)의 팬들은 그의 생일(2월 18일)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남다른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벽화 작업이다. 중국 팬들은 최근 청춘발산마을(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12-16)에 대형 벽화를 조성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이홉 벽화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팬들은 지난해 제이홉의 생일에도 남구 양림동 평민마을에 세로 14m, 가로 3.3m의 대형 벽화를 그렸고, K-POP 스타의 거리에서는 제이홉의 친필사인과 함께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제이홉 벽화는 총장로 K-POP 스타의 거리(왼쪽)와 양림동 평민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광주 지역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찾는 아미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SNS 등에 사진이 올라오고 세계 각지의 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광주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춘발산마을에 그려진 벽화명은 'HOPE in LOVE DIMENSIONS'로 지난 6일 벽화가 완성되자 광주를 비롯해 서울 등에 거주하는 팬들이 이곳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약 15m에 이르는 단층 건물의 외벽 전체를 우주의 한 장면으로 채우고 있으며, 제이홉의 솔로 믹스테이프 '홉 월드'(Hope World)의 아트커버를 연상시키는 보랏빛 행성들 사이에 2019년 BTS 월드 투어 당시 제이홉의 모습이 그려졌다.

벽화 왼쪽에는 강렬한 레드 수트를 입고 솔로곡 '저스트 맨스'를 부르는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의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생일 축하 문구와 '홉 월드'의 가사도 덧붙여 있다. 당초 팬 클럽은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직접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한국의 대행사 '꽃보다 벽화'에 의뢰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다른 제이홉 벽화가 그려진 'K-POP 스타의 거리'(광주시 동구 충장로)에는 제이홉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 아미들 사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 1위로 꼽힐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스타의 거리 입구에는 발산마을 벽화에도 등장한

행성이 그려져 있으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앨범 '홉 월드',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의 아트커버와 솔로곡 '데이드림'의 뮤직비디오를 담은 그림도 볼 수 있다. 또, 국내를 비롯해 미국·스페인·아르헨티나·소말리아 등 전세계 팬들이 제이홉을 향한 마음을 담아 보낸 메시지 2만 1800개가 새겨진 3m 높이의 제이홉 상징 조형물 '홉 월드'(HOPE WORLD)도 설치돼 있다.

팬들은 이밖에도 필리핀 공립학교 교실 건축을 위해 필리핀 기업 '홉:비즈니스 포 굿'과 함께 생수를 특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팬 클럽인 '바이두 제이홉바'는 18일 제이홉의 생일 당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 중심에 있는 '원 타임스 스퀘어'(One Times Square)에 생일축하 영상을 송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카타르의 한 팬은 광주의 지하철역인 상무역에 제이홉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지난달 30일부터 게시하고 있으며, 서울에 사는 한 아미는 지난 8일부터 광주 전역 GS25 편의점에 제이홉의 얼굴이 들어간 전광판을 내걸었다.

또, 제이홉이 태어난 일곡동 관할 광주시 북구에 마스크 2180장을 기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티켓 8000장에 생일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남도문화재단 3월15일까지 모집

호반그룹 남도문화재단이 '2021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은 전국 유명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국내 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도문화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남도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8명의 청년작가를 선발,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적이 만 28세부터 만 45세 이하 작가로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시각예술 전 분야이며,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모가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원과 개인전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상(1명) 1000만원, 선정작가상(4명) 300만원 등 모두 4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선정작가 그룹전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작가는 오는 5월 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발표 예정이며, 선정작가 그룹전은 7월 7일~12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蓮' (연) 고귀한 자태를 드러내다

문인화가 한상운 '인연전' 18일~3월 3일 무등갤러리

문인화가 명당(鳴堂) 한상운 작가의 연(蓮)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연못 속에서 그윽한 자태를 뽐내고 차 향기와 어우러져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연을 그리는 과정을 '참나'를 찾아가는 길이라 말하는 그이기에 희로애락을 거듭하는 삶과 심상속에 도를 지니고 있다. 그의 오랜 스승 금봉 박행보 화백은 그의 작품을 두고 "화선지에 표현된 연(蓮)을 소재로 한 군더더기 없는 일필휘지는 형상을 초월한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한상운 작가 개인전이 오는 18일부터 3월3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인연전(因蓮展)'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 이후 10여년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오로지 '연' 그림 7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칠순을 맞은 한 작가에게는 늘 예술과 인생을 나누는 가족,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다.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의 작품 이외에도 서예가였던 아버지를 비롯해, 사진작가와 서양화가로 활동중인 아내, 딸, 아들, 손녀까지 가족들의 작품도 나왔다. 또 박행보 화백을 비롯해 박종석·이선복·정광주·전명욱·오명섭 등 동료 선후배 작가들의 축하(祝詞)와 목취회 회원들과의 공동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통을 배우되 전통의 단점을 버리는 분석력과 비판력을 갖추고, 전통을 토대로 하되 낡은 껍질을 벗어내는 창조성을 추구했다"는 그의 말처럼 화폭에 등장하는 '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낸다. 전통의 재해석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화폭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탕을 비취 버린 여백의 미

는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며 먹의 농담 효과를 제대로 살린 작품은 은은한 맛을 전한다.

너른 연잎과 때론 봉우리로, 때론 활짝 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연꽃, 잠자리가 올라앉은 연방 등도 다채롭게 해석됐다.

작가는 가수 정태춘의 노래와 김초혜의 '사랑'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어머니의 한 없는 사랑을 노래하기도 한다.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사람이 살면서 갖춰야 할 '덕'(德)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애주가인 그는 '이백 형! 한 잔 따르오 맥당 아우가 또 권주가 부르것소'라는 글과 함께 자유로운 느낌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금봉미술관장을 맡고 있는 한 작가는 석사 학위논문 '한국 근대 사군자에 대한 연구', 장효문 시인과 합작한 시화집 '부림' 등을 펴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和暢한 날의 和唱'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상 혁신사관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